



美國民 大多數 原電을 支持

—Gallup 및 Cambridge Reports社 輿論調查結果—

Gallup Organization社가 1987年 9월부터 10월까지 美國民 成人 1,000名을 대상으로 실시한 輿論調查의 결과에 의하면 美國民의 77%가 原子力이 美國의 未來 에너지需要를 담당할 重要한 에너지源이 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75%는 原子力의 必要性이 해가 갈수록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이 여론조사의 결과는 59%의 국민이 輸入石油의 依存度를 줄이는 方案으로 원자력을 선호하는 반면, 32%는 그 反對의 견해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67%의 국민은 대규모 에너지源으로서 原子力이 현명하며 실질적인 選擇이라고 믿고 있다.

이 여론조사의 결과는 1987年 8월에 Cambridge Reports社가 美國民 成人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와도 일치 하는데, 이 Cambridge Reports社는 전국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기관중의 하나이다.

이 Cambridge Reports社 여론조사의 결과에서는 79%의 미국인이 미국의 전력수요를 充當하는데 있어서 원자력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전국 각지의 보통

사람들의 見解를 올바르게 反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國民들이 原子力의 重要性에 대하여 매우 현실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H.B.Finger 美國에너지啓發協議會(USCEA) 議長은 말했다. 또한 Finger 의장은 미국이 한 國家로서 계속 번영하기 위하여 추구하여야 할 목표를 국민들이 알고 있으며, 실제로 국민들이 原子力에 상당한 期待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USCEA는 에너지관련 情報를 널리 전파하는 비영리기관으로서, 특히 電力의 重要性和 原子力 및 石炭의 役割에 重點을 두고 있다. 여론조사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질문 1〉 現在의 電力需要를 充足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利用하고 있는 에너지源은 무엇입니까? (2개까지만 선택)

	갤럽 (%)	캠브리지리포트 (%)
석탄	34	37
원자력	30	34
수력	28	29
석유	24	34
천연가스	20	21
태양열	13	12
풍력	1	2

〈질문 2〉 電力生産에 使用되는 여러가지 에너지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후 電力生産에 가장 主된 에너지源은 어느 것이 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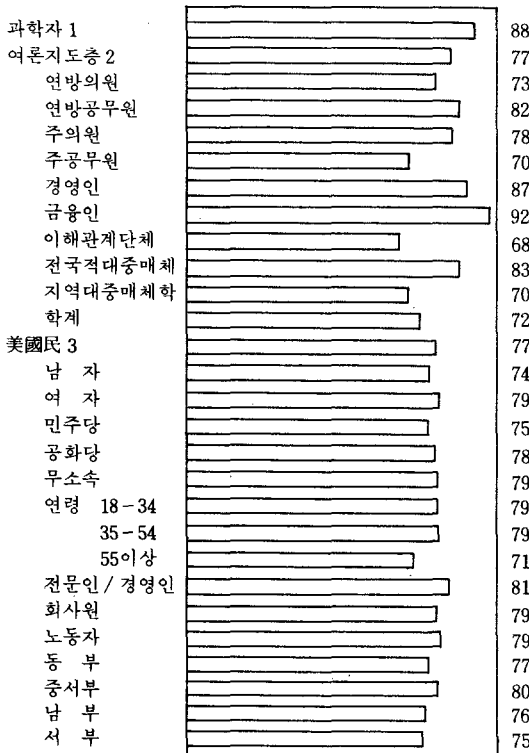
	갤럽 (%)	캠브리지 리포트 (%)
원자력	31	36
태양열	26	24
석탄	12	10
수력	10	12
천연가스	8	7
석유	8	6
풍력	2	2
모르겠다	4	3

〈질문 3〉 未來의 電力需要를 담당함에 있어서 石炭火力은 어느 정도 重要하다고 보십니까?

	갤럽 (%)	캠브리지 리포트 (%)
매우 중요하다	23	27
어느 정도 중요하다	41	37
별로 중요하지 않다	21	21
전혀 중요하지 않다	9	11
모르겠다	6	3

〈질문 4〉 未來의 電力需要를 담당함에 있어서 原子力은 어느 정도 重要하다고 보십니까?

	갤럽 (%)	캠브리지 리포트 (%)
매우 중요하다	47	52
어느 정도 중요하다	30	27
별로 중요하지 않다	13	9
전혀 중요하지 않다	6	8
모르겠다	4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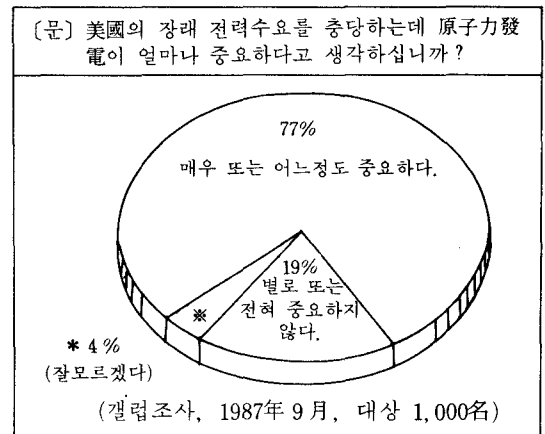
〈질문 5〉 全体的인 에너지需給에 있어서 原子力의 必要性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갤럽 (%)	캠브리지 리포트 (%)
예	75	78
아니오	17	16
모르겠다	8	6

- (註) 1. 全美科學者중 무작위 추출한 580名에 대한 CMPA 여론조사결과
 2. Cambridge Reports社가 1987年에 500名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지도층의 의식조사결과
 3. 갤럽이 1987年 9月에 1,000名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美國의 장래에너지수요를 충당하는데 原子力이 重要하다는 견해

〔문〕 美國의 장래 전력수요를 충당하는데 原子力發電이 얼마나 重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6〉 原子力과 輸入原油에 대하여 다음의 두가지 主張이 있습니다. 어느 主張이 貴下의 意見에 더 가깝습니까?

○석유 수입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면 原子力을 더 써야 한다.

○석유수입의 의존도가 높더라도 原子力을 덜 써야 한다.

	갤럽 (%)	캠브리지 리포트 (%)
더 써야 한다	59	57
덜 써야 한다	32	30
모르겠다	9	13

〈질문 7〉 대규모 에너지源 중에서 原子力이 현명한 선택인지, 현실적인 선택인지, 아니면 우둔한 선택인지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갤럽 (%)	캠브리지 리포트 (%)
현명하거나 현실적인 선택	67	71
우둔한 선택	29	27
모르겠다	4	2

〈질문 8〉 貴下의 地域에 發電所를 建設한다면 原子力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원자력을 반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때 까지 판단을 미루시겠습니까?

	갤럽 (%)	캠브리지 리포트 (%)
원자력 발전소를 택한다	19	17
원자력 발전소를 반대한다	30	33
판단을 보류한다	50	49
모르겠다	1	1

美科學者·技術者, 原電의 重要性和 安全性을 認識

美國 Scientific American社가 1987年 8月에

同社가 發行하는 月刊誌 「Scientific American」을 구독하는 科學者 366名, 技術者 319名을 대상으로 실시한 原子力發電에 관한 輿論調査에 의하면, 과학자와 기술자의 대다수는 原子力發電이 중요하고 안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美國에너지啓發協議會(USCEA)의 위탁을 받아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과학자와 기술자의 84%가 原子力發電이 앞으로 중요하며, 또한 67%는 原子力發電所가 안전하다고 응답하였다(22%는 위험하다고 응답). 그리고 84%는 美國의 原電의 소련의 체르노빌型 原子爐보다 安全하게 설계된 것으로 믿고 있다(소련型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없음).

또한 다음의 다섯가지 産業施設中 당신은 어느 시설 근처에 살고 있습니까? ① 原子力發電所, ② 비행장, ③ 石炭화력발전소, ④ 化學工場, ⑤ 石油精製所라는 질문에 대하여 과학자와 기술자의 45%가 原子力發電所를 선택하였으며, 비행장 26%, 석탄화력 17%, 化學공장 6%, 석유정제소 4%를 나타냈다.

Maine州住民, Maine Yankee 原電의 運轉繼續을 支持

美國 Maine州의 Maine Yankee 原子力發電所(85만kW, PWR)의 운전 계속 여부에 관한 세 번째 주민투표가 작년 11月 3日 실시된 결과, 運轉繼續에 대한 찬성 59%(21만 2,041표), 反對 41%(14만 8,511표)로 이 發電所는 앞으로도 운전을 계속하는데 지장이 없게 되었다.

Maine州에서는 1980年과 1982年에도 이와 같은 주민투표가 실시된 바 있으나, 주민들은 그때마다 60%/40%, 55%/45%로 운전의 계속을 지지한 바 있다.

이번에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Maine Yankee 原子力發電所가 장차 高準位 방사성폐기물을 발

생활 경우, 1988年 7月 4日 이전이라도 原子力發電所의 운전을 인정하겠습니까?」라는 설문
에 찬반을 묻는 형식에 대해서 이 發電所를 소
유하고 있는 Maine Yankee 原子力發電會社와
매스컴은 發電所의 폐쇄를 직접 묻는 제안을 안
한 것은 作爲的이라고 비난하였다.

이 發電所 所有主의 한 멤버인 센츨러·멘電
力會社 대변인은 「우리들은 이렇게까지 높은 지
지율을 얻으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Maine Yankee原子力發電所의 중요성을 주장하
는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나, 마지막 단계까지 찬
성과 반대의견이 백중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
하였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運轉의 계속에 찬성이 기
대 이상으로 높은 득표를 한 배경에는 Maine Y
ankee 原子力發電所가 양호한 운전실적을 기록
하였고, 뛰어난 경제성을 갖고 있는 發電設備

임을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
으로 분석하고 있다.

〈各州의 주민투표결과 비교〉

年 度	州	찬성/반대 (%)
1976年	California	67 / 33
	Arizona	70 / 30
	Colorado	71 / 29
	Montana	58 / 42
	Oregon	58 / 42
	Ohio	68 / 32
1980年	Washington	67 / 33
	Maine	60 / 40
1982年	Missouri	61 / 39
	Maine	55 / 45
1984年	Missouri	67 / 33
1986年	Oregon	64 / 36
1987年	Maine	59 / 41



本

原電에 對한 信賴度 回復

— 日本 總理府의 輿論調查에서 —

日本 總理府가 발표한 「原子力에 關한輿論調
査」에 따르면, 소련의 체르노빌原子力發電所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이를 냉정히 받아들
이고, 원자력발전의 안정적인 운전실적 등도 반
영하여 日本의 기술과 안전대책에 대해 信賴感
을 갖고 있는 사람이 51.7%에 달함으로써 過半
數 以上の 支持를 얻고 있다.

이 여론조사의 概要는 다음과 같다.

● 調査目的 : 일본은 원자력의 개발어용에 차
수한지 30년을 맞이하고 있는 현재에 원자력 및

原子力發電所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조사하여
앞으로 원자력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참고로 한다.

● 調査項目 : ① 原子力에 대한 認識 ② 체르
노빌原子力發電所의 사고 ③ 원자력발전의 인식
④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 調査對象 : ① 모집단=전국 20세 이상의 者
② 표본수= 3 천명 ③ 추출방법=無作爲추출법

● 調査時期 : 1987년 8월 27일~9월 6일

● 調査方法 : 조사원에 의한 면접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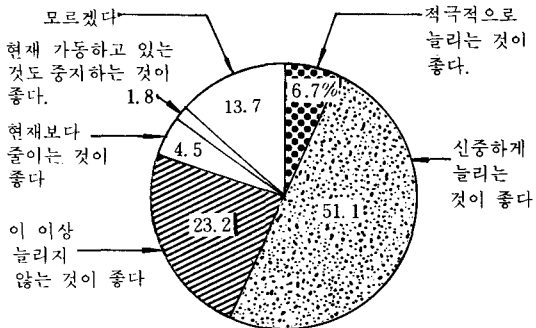
● 回收結果 : 유효회수수(율) 2,360명 (79.0%)

체르노빌事故에 關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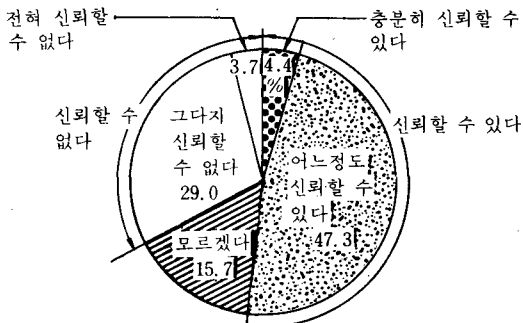
1986년 4월에 소련의 체르노빌原子力發電所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답한 사람은 92.9%, 「알지 못했다」고 답한 사람은 7.1%로 되어 있다.

「알고 있었다」라고 답한 사람중 都市規模別에서는 도시규모가 클수록, 性別에서는 여성보다 남성, 年齡別에서는 50세 미만이 많았다.

다음으로 체르노빌原子力發電所의 사고를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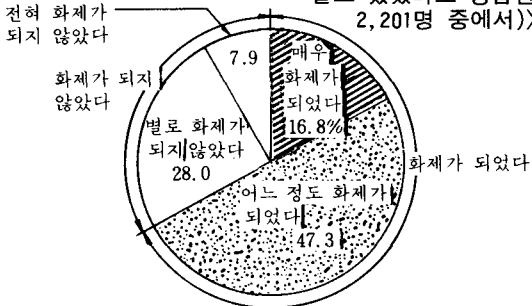


〈原子力發電의 앞으로의 比率〉



〈日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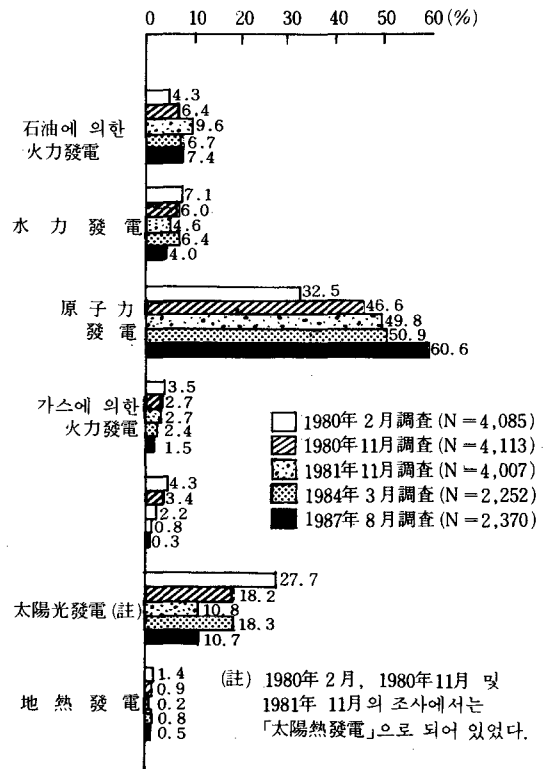
〈체르노빌사고가 어느정도 화제가 되었는가(사고를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2,201명 중에서)〉



고 있었다라고 답한 사람(2,201명)에게 그 사고가 職場이나 그 주변에서 어느 정도 話題가 되었는가를 질문한 결과, 「話題가 되었다」고 답한 사람은 64.1% (「크게 화제가 되었다」 16.8%와 「어느 정도 화제가 되었다」 47.3%)로 약 3명에 2명꼴이 되고 있으며, 「화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답한 사람은 35.9% (「그렇게 화제가 되지 않았다」 28.0%와 「전혀 화제가 되지 않았다」 7.9%)로 되어 있다.

都市規模別에서는 「화제가 되었다」라고 답한 사람은 10대 도시와 인구 10만명 이상의 市, 「화제가 되지 않았다」는 음면에 많았다.

年齡別에서는 「화제가 되었다」라고 답한 사람은 30~40세대, 「화제가 되지 않았다」는 50세 이상에 많았다.



〈앞으로의 主力發電〉

앞으로의 主力電源으로 60.6%가 原子力を 支持

日本에서 현재 主力發電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결과는 「石油에 의한 火力發電」이라고 답한 사람이 3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水力發電」(27.9%), 「原子力發電」(17.3%)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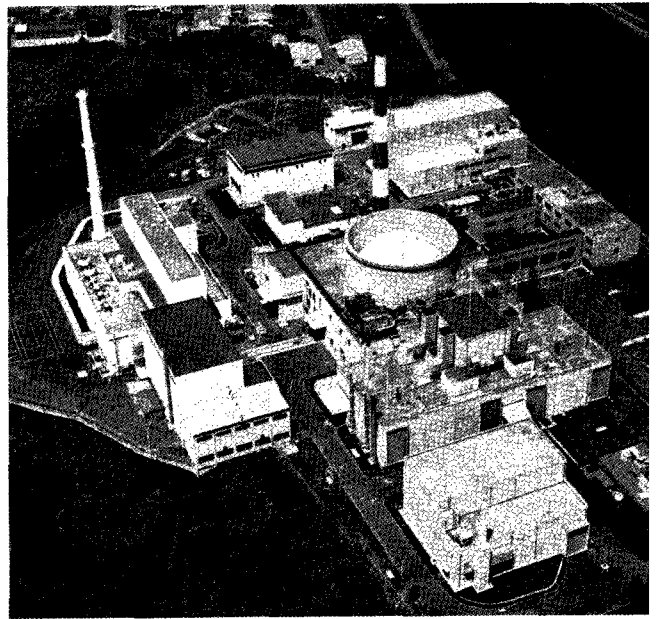
또 앞으로 무엇이 主力發電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는 「原子力發電」이라고 답한 사람이 60.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太陽光發電」이 10.7%, 「石油에 의한 火力發電」이 7.4%로 되어 있다.

과거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현재의 主力發電에서는 「原子力發電」이라고 답한 사람은 증가한 반면에 「石油火力發電」이라고 답한 사람은 감소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의 主力發電에서는 「原子力發電」이라고 답한 사람이 증가하고, 「太陽光發電」이라고 답한 사람은 감소하고 있다.

현재 日本에서는 總發電量の 약 27%가 原子力에 의해 발전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비율은 증가될 계획으로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좋겠다」 6.7%, 「신중히 증가시키는 것이 좋겠다」 50.1%로 2명에 1명꼴, 「이 이상 증가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 23.2%, 「현재 보다 줄이는 것이 좋겠다」 4.5%,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것도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 1.8%로 되어 있다.

原子力發電에 대해서 「어떠한 不安·염려를 느끼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은 85.9%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사고나 고장 등으로 放射線이 누설되므로」(39.9%), 「放射線(能)이 인체나 子孫들에게 영향을 주므로」(39.4%), 「廢發物의 보관과 처리·처분 등에서」(29.7%) 등으로 되어 있으며, 「不安·염려할 바가 아니다」라고 답한 사람은 8.1%로 되어 있다.

日本の 原子力發電所의 安全性에 대해서 「信賴할 수 있다」라고 답한 사람은 51.7%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4.4%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 47.3%로 2명에 1명꼴이 되어 있으며, 「신뢰할 수 없다」라고 답한 사람 32.7% 「그렇게 신뢰할 수 없다」 29.0%와 「전혀 신뢰할 수 없다」 3.7%를 상회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다」라고 답한 사람은 都市 규모 별로는 東京都區部, 性別에서는 여성 보다 남성, 年齡別은 20세대, 40세대, 學歷別은 高學歷이 될수록 많아지고 있다.

日本の 原子力發電所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이유로 性別에서는 「기술이 훌륭하다」 「충분한 安全對策」 「소련의 炉型과 다르다」는 남성, 「과거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日本은 안전하다고 하니까」는 여성이 많았다.

〈表〉 이번 조사와 과거의 여론조사 비교

調査年月	調査名	有効回収數
1980年 2月	省에너지·省資源에 관한 輿論調査	4,085人
1980年 11月	省에너지에 관한 輿論調査	4,113人
1981年 11月	省에너지에 관한 輿論調査	4,007人
1984年 3月	原子力에 관한 輿論調査	2,252人



캐나다

一般國民과 意思交流 必要

— 캐나다의 輿論調查結果에서 —

캐나다의 原子力産業界는 國民들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진실로 要求하는 바를 만족시킬 수 있는 情報事業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原子力이 처음 도입된 이래 지난 30년 동안 原子力技術에 대한 國民의 지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최근의 調査, 특히 체르노빌事故以後의 조사결과는 지지가 감소된 반면에 반대가 늘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1987年 6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主要分析結果는 다음과 같다.

○食品照射와 uranium採鑛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原子力産業에 대한 認識이 낮으며, 단지 核의학 분야만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부분의 캐나다人들은 原子力産業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다.

○發電의 한가지 수단으로 原子力을 利用하는데 대한 지지는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는 56%이나, 이 지지율도 유동적이어서 약간 지지한다가 42%, 약간 반대한다가 25%이다. 따라서 67%는 앞으로의 정세와 여러 團體들의 活動 등에 따라 지지 혹은 반대의사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原子力을 지지하는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의 安定供給 確保와 技術上的의 이득이다.

○原子力을 반대하는 이유는 安全性和 廢棄物問題에 집중하는데, 체르노빌과 같은 事故가 캐나다에서도 發生할 수 있으며, 만일 캐나다에서 事故가 일어나면 방사선 재해를 모면할 길이 없다. 또한 原子力産業界가 아직 廢棄物의 處

分能力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廢棄物을 安全하게 處分할 수 있을 때까지 原子力發電을 使用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캐나다人들은 사고의 가능성(41%)보다 廢棄物 處分問題(56%)에 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유동적인 지지율은 현재의 原子力利用狀況을 보는 태도에서 더욱 확실하게 나타난다. 즉, 83%가 그들이 原子力을 좋아하던 또는 싫어하던 캐나다에서 原子力發電이 계속될 것이라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原子力에 대한 지지와 반대에 관한 여론조사가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는데, 女性과 British Columbia州의 주민 및 Quebec州와 Nova Scotia州의 일부주민들은 原子力産業, 특히 安全性和 廢棄物問題에 대해서 더욱 비판적인 경향이 있으며, 男性과 젊은층 및 캐나다의 原電 대부분이 위치하고 있는 Ontario州의 주민들은 한층 긍정적이다. 또한 높은 水準의 행동주의자들이 대상문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더 비판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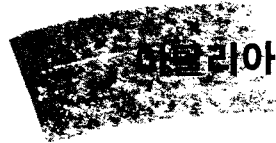
이 여론조사의 결과는 一般公衆과의 의사소통이 더 한층 필요함을 명백히 시사하고 있다.

온타리오州住民 過半數가 既存原電의 利用을 支持

캐나다 온타리오·하이드로社는 최근 온타리오州 住民의 原子力發電에 대한 의식조사결과에 관해서 온타리오州의 原子力安全問題檢討를 담당하고 있는 海牙委員會에 보고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TMI 사고 및 체르노빌 사고는 온타리오·하이드로社의 原子力發電 개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장래의 原子力發電計劃의 확장에 대한 주민의 지지율은 저하되고 있다고 하였다. 온타리오·하이드로社는 이 州의 既存의 原子力發電所 이용에 대한 지지율은 50%에서 57%로 안정치를 보여주고 있으나, 장래의 原子力 개발에 대한 주민의 지지율은 30%에서 40%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온타리오州 주민의 23%는 原子力發電所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영향이 同州內에 그칠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하여, 68%는 사고의 영향이 州外로 확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同社는 1970년대 중반부터 原子力發電에 관한 輿論調査를 해오고 있다.



原電의 立地決定權을 議會로 移讓

原子力發電所 建設問題(3項目) 및 司法制度(2項目)에 관해서 民意를 묻고자 11월 8일과 9일에 실시한 이탈리아 국민투표 개표결과 투표내용의 5項目 모두가 70%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 승인되었다.

이 결과 지금까지의 原子力發電所 立地決定權을 관장하고 있던 地方自治團體 및 政府의 經濟計劃關係 閣僚委員會(CIPE: 地方自治團體가 150일 이내에 態度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CIPE가 결정한다)의 권한을 인정한 法律이 폐지되고, 原子力發電所立地의 決定權을 議會로 넘기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原子力發電所의 건설에 동의한 自治團體에 대한 補助金制度가 철폐되고, 外國의 原子力發電所 建設計劃에 이탈리아가 참가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번 국민투표는 原子力發電에 찬성 또는 반대를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묻는 내용은 없지만, 原子力기술개발에 필요한 外國의 原子力發電計劃으로의 참가를 규제하는 등 앞으로 이탈리아 原子力政策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表〉 原子力發電에 관한 이탈리아 국민투표 결과

1. 귀하는 經濟計劃關係閣僚委員會(CIPE)의 原子力發電所의 敷地 選定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을 폐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 폐지에 찬성: 80.6%

○ 폐지에 반대: 19.4%

2. 귀하는 정부가 發電所를 유치하는 地方自治團體에 補助金を 주도록 허가한 법률을 폐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 폐지에 찬성: 79.7%



스웨덴의 多數 科學者, 2010年 以後에도 原子力發電을 支持

스웨덴은 1980년의 原子力發電 開發을 둘러싼 국민투표 결과에 의하여 原子力發電所의 運轉을 2010년까지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나라 科學者의 70%는 이러한 결정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이 에데보루이大學 조사결과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보고에 의하면 스웨덴 科學者의 70%는 原子力發電을 필요불가결한 에너지로 생각하며, 2010년 이후에도 原子力發電을 계속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국민의 73%는 연구자나 과학자의 대다수가 原子力에 반대하는 것으로 믿고 있지만, 이것은 매스미디어가 특징짓고 있는 연구자나 과학자의 한 단면이며, 그러한 인식은 국민의 오해임을 결론짓고 있다.

○ 폐지에 반대 : 20.3%

3. 귀하는 이탈리아電力公社(ENEL)가外國의 原子力發電計劃에 참가를 허가한 법률을 폐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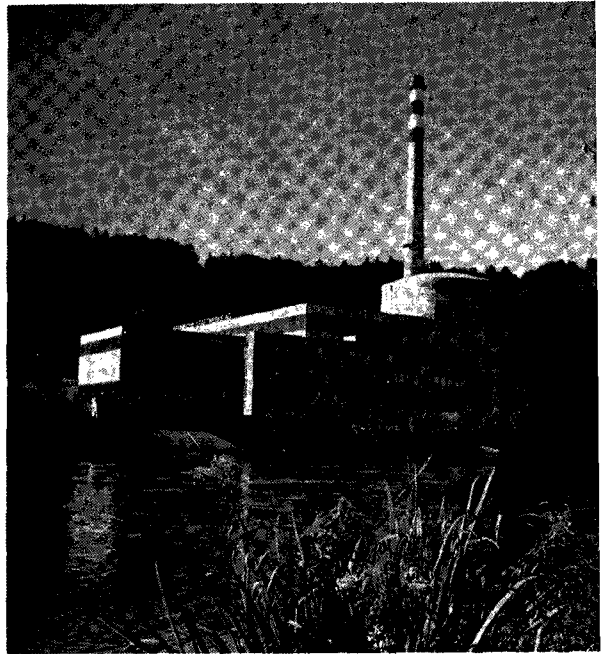
○ 폐지에 찬성 : 71.8%

○ 폐지에 반대 : 28.2%

두번째 原子力反對이니시어티브 當局에 提出

原子力開發에 대해서 환경보호주의자와 지역 주민의 반대가 끈질긴 스위스에서 최근 原子力 반대 이니시어티브가 지난해 1월에 이어서 또 다시 10만명이 넘는 10만 8천명의 서명을 획득하여, 연방당국에 제출되었다. 서명의 유효성이 인정되면 국민투표 실시는 빠르면 1989년 말경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에서는 지금까지 1979년과 1984년에 原子力 반대 이니시어티브의可否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으나, 번번히 否決된 바 있다. 이 나라에서는 10만명 유권자의 유효서명을 획득하게 되면, 일단 否決된 사항에 관해서도 또 다시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지난해 1월 13만명의 서명을 받아 연방당국에 제출된 최초의 原子力반대 이니시어티브는 ①계획중인 카이저·아우구스트原子力發電所 建設의 중지, ②原子力發電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시간적 여유를 가질 것을 골자로 하며, 국내의 모든 原子力활동의 10년간 금지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이번에 두 번째인 原子力반대 이니시어티브는 그 요구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써 ①가능한 빨리 原子力發電所의 운전을 단계적으로 중지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原子力發電所 建設의 전면중지, ②환경에 알맞고 再生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분



산형 발전시설의 이용을 중심으로 하는 州 및 연방정부에 의한 省에너지계획의 실시를 주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스위스는 운전중인 原子力發電所 5基 307만 9천kW의 설비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1985년의 총 발전량중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水力 59.6%에 이어 38.8%로써 原子力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최근 스위스의 주요 전력회사 10개社의 團體인 VSE는 2005년까지 연평균 2.4%의 전력수요신장을 예상할 경우 2004~2005년에는 전력수입을 계속하는 한편 省에너지를 진전시키더라도 총수요량의 6.5%에 상당하는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일한 에너지源인 水力資源의 개발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공급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프랑스의 原子力발전소로부터 전력수입 등을 도모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이번의 두번째 이니시어티브投票는 21세기를 向한 스위스에너지政策의 基調를 가름하는 하나의 指標가 될지도 모른다.